

홈 > 뉴스 > 자치·행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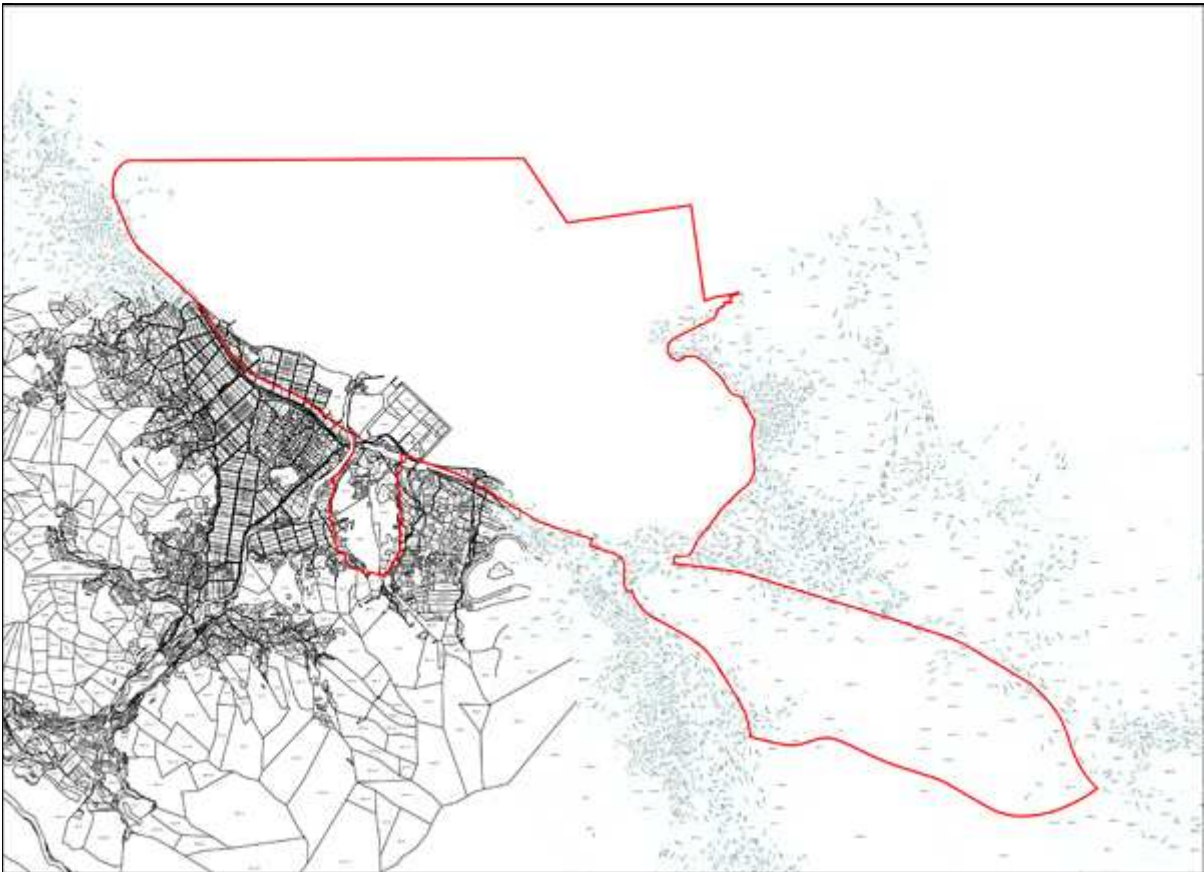
사곡만 일원 ‘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’

사곡·사등리 ...5,341,177㎡(1,618,538평)

2013년 12월 27일 (금) 10:35:02

김창기 기자 ✉ kck@geojenews.com

사등면 사곡·사등 일원이 ‘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’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달 10월부터 ‘사곡·사등리 일원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해 온데 이어 지난 19일자로 ‘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’했다.

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,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등면 사등·사곡리 일원, 자연녹지, 계획관리, 보전관리, 농림지역 등 5,341,177㎡(1,618,538평)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.

경남도와 거제시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‘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’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다.

사등·사곡 일원은 국도14호선이 인접해 있고 김천~거제 간 철도망 확충에 따른 교통접근성이 뛰어나 국가산단 최적지로 분석되고 있다.

제한사유

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(일반산업단지)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▲사업예정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(조성원가 경쟁력 확보)은 물론 ▲토지매입·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개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▲향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한한다.

개발제한대상 행위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▷건축물의 건축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 포함)의 건축, 대수선 및 용도 변경 ▷공작물의 설치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▷토지의 형질변경: 절토, 성토, 정치,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▷토석의 채취: 흙, 모래, 자갈,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▷토지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,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▷기타,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등이다. 자세한 관계도면은 시청 도시과(☎639-4443)에서 확인하면 된다. 김창기 기자

© 거제중앙신문(<http://www.geoje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